통일화보

주체110(2021)년
(11 — 12월)
6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서거 10돐 중앙추모대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진행

생산정상화의 동음높은 대안친선유리공장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긴 명배우

ISSN2305 8544

통일화보 주체110(2021)년 6호 (11 — 12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하시였다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 진행 4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6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서거 10돐 중앙추모대회 8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1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진행 12

장검 16

공화국의 현실

생산정상화의 동음높은 대안친선유리공장 20

질좋은 건재품들을 더 많이 24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열의 안고 28

한겨울에 펼쳐진 흐뭇한 남새작황 32

사시절 과일향기 차넘치는 곳 36

수도시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 40

유치원에서의 하루 44

화목한 이웃들 48

가정에 넘치는 차향기 52

《백토새》 화석고증에 열정을 바쳐가는 사람들 56

해님의 축복을 받아안은 소년 58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긴 명배우 60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어제날의 세계권투녀왕 64

30여년을 옛 명주제조법연구에 바쳐 67

표지: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각계층 근로자들

뒤표지: 서리꽃 핀 리명수

편집: 리대성, 정철성

8

12

20

60

소 식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진행 18

18

슬기로운 우리 민족

광법사 72

72

사진으로 보는 2021년 남녘의 민심 70

70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가 지난 12월 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에 의연 난관이 가로놓여있는 속에서도 온 한해 당중앙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주요정책목표들이 기백있고 전투력있게 추진된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룩한 성과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된 전반사업이 활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보여주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안겨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이라는 당중앙위원회적인 평가를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해는 올해에 못지 않게 대단히 방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는 새년도계획을 력동적으로, 전진적으로,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수립하여 5개년계획수행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준비사업과 관련한 포치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2월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전원회의 의정을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주체110(2021)년 12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소집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021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의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새년도 사업계획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12월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를 소집할것을 결정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가 지난 12월 4일과 5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군사교육일군들을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참된 교육전사로 준비시키며 군사교육사업을 철저히 당의 사상과 정책, 방식대로 조직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당중앙에 절대충성하는 지휘성원들로 육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제반 원칙과 군사교육의 발전방향, 과업과 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폐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무력의 력사에서 여덟번째로 열린 군사교육일군대회가 참가자들의 높은 열의속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우리의 군사교육을 국가적으로도 제일 앞선 교육, 혁명무력의 핵심진지강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교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는 군사교육부문을 당중앙결사옹위의 붉은 보루로 억척같이 다지며 군사교육을 군건설과 군사활동 나아가서 주체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추동하는 힘있는 동력으로 전환시키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서거 10돐 중앙추모대회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엄숙히 거행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대하가 되여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서거 10돐 중앙추모대회가 엄숙히 거행되였다.

추모대회에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장병들,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추모대회장은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추모대회주석단에 나오시였다.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중앙추모대회 개회를 선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경건히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모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를 하였다.

추모대회는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고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 안고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굽이치는 만수대언덕

12월 17일 12시 전국에 일제히 고동이 울리는 속에 전체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여 3분간 묵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주체110(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원수님께 전원회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소집의 기본목적과 그 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첫해인 2021년도 당 및 국가사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리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2021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2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2. 2021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3.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4. 당규약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데 대하여
5.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하반년도 당조직사상생활정형에 대하여
6. 조직문제

김정은원수님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토의에서 국가예산심의조가 검토하여 제기한 2021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을 최종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 제출할것을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에 대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충분한 사전연구를 통하여 당규약수정안이 당건설과 당활동을 정규화, 규범화하는데서 실천적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면서 당규약의 해당 조항을 수정할데 대한 결정을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위대한 당의 불패의 향도따라 희망찬 새해 2022년을 혁명발전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이기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의 개시를 선언하고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추동할 전략적방침을 제시한 력사적인 회의로 주체혁명사에 뜻깊게 아로새겨질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장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수리아아랍공화국
군대 및 무장력 통신국 국장이 드린 선물

주체104(2015)년 4월 25일

| 소 식 |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진행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로동신문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위대한 수반이신 김정은동지 만세!

김 정 은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110(2021)년 11월 18일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와 전국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이후 3대혁명수행을 위한 대중운동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공유하고 나타난 결함과 교훈들을 분석총화하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사업을 새롭게 혁신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자》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정중히 전달하였다.

3대혁명을 동력으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과 3대혁명선구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구절구절 맥박치는 서한은 대회참가자들을 무한히 격동시키였다.

대회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전국의 3대혁명기수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찬동속에 채택되였다.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는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령역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우리의 모든 혁명진지를 3대혁명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앞당겨오기 위한 력사적리정표를 세운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글 본사기자

생산정상화의 동음높은
대안친선유리공장

굴지의 유리생산기지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놓았다.

판유리직장에서는 국산화, 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용해로의 조종기구들을 개조하고 석로바닥펴기를 비롯한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로보수기일을 훨씬 앞당겼다.

수소질소직장에서는 수소생산용전해조의 전해액을 재생리용하여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하였으며 원료직장, 선광직장들에서도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생산토대의 정비보강에 큰 기여를 하였다.

지금 이 공장에서는 수도의 살림집건설장들과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각종 유리들을 생산하여 보내준 그 기세로 뜻깊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더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사진 박주성, 글 윤금철

⇧ 유리생산의 주원료를 저장하는 원료직장

⇨ 자체의 힘과 기술로 대보수한 용해로의 유리물온도를 측정하는 조종공들

자력갱생으로 유리생산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생산자들

질좋은 건재품들을 더 많이

- 평양정향건재공장 -

◆ 각종 칠감, 콩크리트첨가제, 방수제, 보온재, 경소마그네샤합판생산
◆ 모든 제품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규로 등록되고 많은 특허증서 소유

평양정향건재공장은 각종 건재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건재생산기지이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외장재, 내장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칠감들과 방수제, 보온재 등 수십가지의 질좋은 건재품들은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이 대단하다.

질제고를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기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건재들의 규격정보수집을 선행시키고 그 분석과 관리에 힘을 넣었다. 그리고 인재들을 찾아내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또한 공업시험실에 각종 측정, 검사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놓고 생산물들과 새 제품개발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도록 하였다.

결과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이 신속히 도입되여 제품의 질적지표가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였다.

릉라인민유원지,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기여한 이 공장에서는 건재품들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사진 박주성, 글 윤금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열의 안고

- 선교편직공장 -

선교편직공장은 각종 내의와 뜨개옷을 비롯한 편직물들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경공업공장이다.

지금 이 공장에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전투목표결속을 위한 년말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인민들의 기호와 시대적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편직제품들을 많이 생산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선행공정을 맡은 직조직장에서는 대환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맡겨진 직물생산을 다그치고있으며 염색작업반에서는 생산준비와 설비점검, 보수를 제때에 따라세우고 기대공들의 책임성을 높여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재단직장에서는 합리적인 재단방법들을 받아들여 자재를 극력 절약하고 유휴자재들로 장갑 등 다종다양한 소비품들을 생산하고있으며 기술준비실과 도안실의 기술자, 도안가들도 제품개발계획을 혁신성있게 세우고 새 제품들을 내놓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하기에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갈매기》상표 편직제품들은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라춘송, 글 한진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일부

한겨울에 펼쳐진 흐뭇한 남새작황

-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남새온실 -

사람들은 흔히 겨울은 농한기로 생각한다. 하지만 기온이 령하를 오르내리는 한겨울을 드바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의 온실관리공들이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눈비나 막아주던 생산건물의 지붕우에 태양열온실이 번듯하게 꾸려져 남새재배와 수확에 여념이 없는것이다.

온실농사는 온실을 지어만 놓는다고 하여 그저 되는것이 아니다.

작물들의 품종별생육조건에 맞는 온습도조절과 영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수경재배를 비롯한 선진적인 재배방법들도 도입하며 씨솎음, 덧비료주기, 생물농약주기 등 공정별에 따르는 비배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해야 한다.

년초부터 질좋은 거름을 듬뿍 내고 토양재배, 화분에 의한 남새재배를 비롯한 립체적인 재배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안아온 풍만한 작황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준다.

온실은 비록 크지 않아도 성실한 노력과 알심으로 한겨울에도 남새풍작을 이루어낸 관리공들의 얼굴마다에 보람과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다.

사진 박주성, 글 윤금철

사시절 과일향기 차넘치는 곳

- 모란봉대동강과일직매점 -

열매가 무르익는 가을은 한해에 한번이지만 려명거리에 있는 모란봉대동강과일직매점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과일향기가 그윽하다.

그 향기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서면 바구니마다 그득히 쌓여있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수확한 갖가지 과일들과 천연 그대로의 맛과 향기가 나는 과일단물, 기능성초음료와 같은 과일가공품들이 눈길을 끈다.

밀차를 밀며 매대사이를 지나느라면 제나름 구미에 맞는 과일들을 바구니마다에 담뿍이 채워가는 사람들과 친절한 봉사원들의 미소어린 모습도 엿볼수 있다.

한겨울에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사는것도 좋지만 사람들의 얼굴에 피여난 함박꽃웃음을 보는것 또한 흥그러워 한번 오면 떠나고싶지 않은 이곳이다.

사진 최광혁, 글 한진아

천연 그대로의 과일의 맛과 향기가 넘치는 《대동강》 상표를 단 과일가공제품들은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다.

수도시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

지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평양제1백화점에서 진행된 전시회에는 평양곡산공장, 평양학용품공장, 류원신발공장을 비롯한 1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수백여종에 달하는 인민소비품들이 전시되였다.

을밀대의 설경

유치원에서의 하루

- 모란봉구역 11월3일유치원 -

종합놀이시간

청음시간

공화국에서 학령전어린이들은 2년간의 유치원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있는지.
그 답을 모란봉구역 11월3일유치원에서 찾기로 하였다.

점심식사시간

과외교육시간

해빛쪼이기 및 바깥놀이시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들의 유치원에서의 하루는 이 말로부터 시작된다.

하나같이 복스러운 어린이들의 이 인사말이 이내 교양원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을 피워놓는다.

아침체조시간, 아이들이 경쾌한 선률에 맞추어 작은 팔다리를 달싹이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재롱스럽고 귀엽다.

(다음은 무슨 시간일가.)

원장선생과 함께 첫 교양실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새별눈을 반짝이며 우리 말과 글을 열심히 익혀간다. 어린이들은 유치원시절에 우리 말과 글만이 아니라 외국어교육까지 받는다고 한다. 또 다른 방을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제법 어른스레 앉아 바둑에 여념이 없거나 꽃잎같은 손으로 잽싸게 주산을 튕기며 셈을 하는데 그 진지한 모습들이 기자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교양원의 말에 의하면 바둑과 주산교육은 어린이들의 오른쪽뇌계발에 유익하다고 한다.

사뭇 놀라움으로 어안이 벙벙한 기자를 맑은 종소리가 깨운다.

해빛쪼이기 및 바깥놀이시간이 온것이다.

서로 승벽내기로 미끄럼대와 그네를 타며 즐겁게 뛰노는 어린이들.

마당이 좁다하게 한껏 웃고 떠들던 장난꾸러기들이 어느새 포근한 요람속에서 쌔근쌔근 단잠에 들었다. 아무리 보아도 싫지 않은 귀염둥이들이 지금 어떤 꿈을 꾸고있겠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교양원과 취재시간을 보내고있는데 살며시 곁으로 다가온 어린이.

《선생님, 배고픕니다.》

(저런, 점심밥을 먹은지가 얼마나 되였다구…)

새참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듯 아이들이 우유와 빵을 맛나게도 먹는다.

이제 재능에 따른 성악이나 그림그리기를 배워주는 과외교육시간을 마치면 아이들은 빨간별 탄 자랑안고 엄마의 손목에 매달려 집으로 돌아갈것이다.

유치원에서의 하루는 행복동이들의 웃음의 하루.

티없이 맑고 천진한 아이들의 밝은 웃음속에 앞날의 꿈이 실리고 조국의 미래가 그려진다.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유치원의 하루이다.

사진 장창욱, 글 한진아

화목한 이웃들

- 대성구역 룡흥2동 129인민반 -

오가는 정과 사랑속에 한식솔이 된 다정한 이웃들

이웃들사이에 서로 도와주며 화목하게 지내는것은 공화국의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것으로 되고있다.

려명거리 70층아빠트에서 살고있는 룡흥2동 129인민반 주민들은 한가정처럼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는것으로 하여 얼마전 신문에도 났다.

이곳 주민들은 이웃에서 사는 늙은이들의 건강에 늘 관심을 돌리고 때로는 보약재와 색다른 음식을 안고 찾아가기도 하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자식들이 있을 때면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바래워주고있다.

김장철에는 바쁜 일손을 서로 도와주고 아들딸들이 새 가정을 이루면 자기 집일처럼 생각하고 기념품을 안겨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얼마전에는 갓 해산을 한 14층 1호집의 며느리를 위해 보약재들을 마련해주었으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한 주민에게 많은 이웃들이 찾아가 의료일군들을 감동시켰다.

서로 돕고 위해주며 화목을 꽃피워가는 이런 이야기는 이곳 주민들 누구에게나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려가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생활의 단면이다.

사진 박주성, 글 윤금철

친부모의 심정으로 신혼부부의 가정도 찾아보고

이웃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휴식날도 함께 모여 즐겁게 보내고

가정에 넘치는 차향기

- 대동강구역 문흥2동 84인민반 리광식가정 -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세대주 리광식

기자: 차는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하였는가.

리광식: 10여년쯤 된다. 처음에는 남들이 권하기에 한두잔 마시기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시지 못하면 마음이 허전해지군 한다.

기자: 가정에서 주로 마시는 차는…

리광식: 은정차다. 차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은정차는 색이 곱고 향기도 독특하며 맛 또한 이를데없어 식구들모두가 좋아한다.

기자: 차를 마시면 무엇이 좋은가.

리광식: 차를 마시면 건강상태가 좋아지는것이 알린다. 특히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차를 정상적으로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사업능률도 높아진다. 그래서 예로부터 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하여 《신선의 음료》로 불리워왔다.

기자: 차도 마시는 방법이 있겠는데…

리광식: 애호가들은 물끓는 소리부터 듣는다. 그리고 손으로 차잔의 촉감을 느끼며 색을 보고 향긋한 냄새를 맡는다. 다음 조금씩 마시면 그윽한 차의 맛에 심취된다.

기자: 차에 대해 일정한 지식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리광식: 차문화라는것은 차나무의 재배와 차잎의 생산, 가공처리 그리고 차그릇의 생산과 사용 등의 종합적개념을 이르는것이고 차생활이라는것은 차의 오묘한 맛과 향을 즐기는것을 말한다.

우리 가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꾸려진 은정차집들과 가정들에서 차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다.

차끓이는 일은 섬세하면서도 눈썰미가 있는 며느리의 몫이다.

상점들에 가면 차매대부터 찾군 하는 리광식, 민승명부부

독특한 맛과 향기
누구에게나 건강과 젊음을 주는
은정차
강령록차 강령홍차 철관음차
최고의 품질!
황해남도 강령군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자래운 차잎을 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은정차
철관음 차
강령홍차
은정차
강령홍차
은정차
강령록차

2019년 10월 촬영

《백토새》화석고증에 열정을 바쳐가는 사람들

- **김일성**종합대학 자원과학부 자원개발연구소 층서고생물연구실 교원, 연구사들 -

2017년 11월 촬영

신의주시 백토동지구에서 발굴한 새화석들의 일부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자연유산의 발굴고증을 위해 오랜 세월 묵묵히 고심어린 탐구와 열정을 바쳐가는 사람들속에는 공화국의 중생대생태환경연구에서 학술적의의가 있는 백토동화석보호구를 다시금 새롭게 확증하고 중생대의 희귀한 새화석을 발굴하여 민족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한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도 있다.

이들은 수년세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맵짠 추위와 뙤약볕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질망치와 지질곡괭이로 암석쪼각을 뜯어내며 화석발굴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조선시조새》화석이 발굴된 때로부터 수십년만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새화석을 또다시 찾아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화석으로 발굴된 새를 《백토새》로 명명하도록 해주시고 자연박물관에 전시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곳 교원, 연구사들은 민족의 력사를 빛내일 일념으로 오늘도 공화국의 중생대생태환경연구에서 학술적의의가 있는 《백토새》화석고증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호건이는 수학을 좋아한다. 앞으로 크면 꼭 박사가 되려는것이 그의 꿈이다.(앞줄 왼쪽으로부터 첫번째)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장호건

해님의 축복을 받아안은 소년

- 중구역 류성소학교 장호건학생 -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소년이 있다.

그가 바로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꿈결에도 뵙고 싶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린 중구역 류성소학교 학생 장호건이다.

호건이의 올해 나이는 10살, 최우등생이며 품성이 좋고 례의도덕도 밝아 선생님들과 동무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모범소년단원이다.

평범한 근로자의 자식인 그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성대히 진행된 경축연회에까지 참가할줄 어찌 꿈엔들 생각이나 했으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소년단원들을 친히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호건이의 밝은 앞날도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해님의 축복을 받아안은 꽃망울 호건이.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을 담뿍 받아안은 애어린 꽃망울이 만발하는 사회주의대화원에서 탐스런 꽃송이로 활짝 피여날 때 그 향기 또한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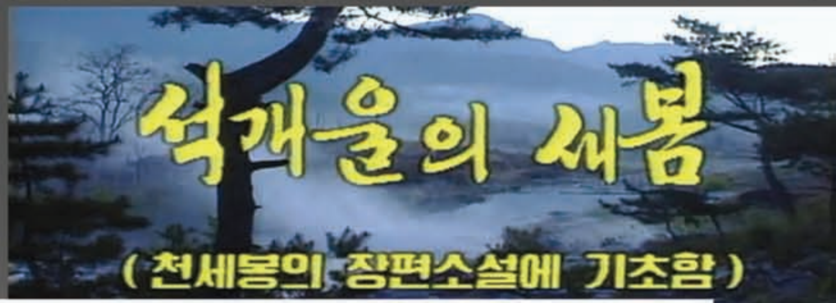
사진 라춘송, 글 한진아

10점꽃을 활짝 피운 호건이는 학급동무들의 자랑이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긴 명배우

- 전 TV극창작사 인민배우 방석운 -

지난 40여년간 수십편의 예술영화와 TV련속소설, TV련속극들에 출연한 관록있는 인기배우



TV련속극 《붉은 흙》의 한 장면

부정역으로 출연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과 TV련속소설 《석개울의 새봄》 중에서

사람들은 로년기를 황혼에 비유하기도 한다. 정신육체적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정열도 점차 식어가기때문이다.

그러나 전 TV극창작사 방석운배우는 인생말년에도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보람찬 삶을 이어가고있다.

그는 지난 40여년간 배우생활을 하면서 수십편의 예술영화와 TV련속소설, TV련속극에 출연한 관록있는 영화인이였다.

긍정역보다 생동한 부정역형상으로 사람들에게 여운을 남긴 그는 오늘도 자기의 이름보다 TV련속소설 《석개울의 새봄》에 나오는 《조맹원》이라는 부정인물의 이름으로 불리우고있다.

그가 로환으로 촬영기앞을 떠난지도 어느덧 1년.

병치료로 날과 달을 보내고있던 그에게 따스한 봄빛이 비쳐왔으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만나뵙고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닌것이다.

그의 나이 올해 77살, 인생의 봄은 두번다시 오지 않는다지만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방석운은 로당익장하여 신인배우들의 연기형상과 화술기량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오늘도 창작사를 자주 찾군 한다.

사진 박주성, 글 윤금철

신인배우들의 연기형상과 화술지도에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모란봉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며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어제날의 세계권투녀왕

- 국가종합체육단 부원, 인민체육인 리정향 -

2중세계녀자권투선수권을 보유한 리정향의 올해 나이는 39살.

20여년전 그의 여린 손목에 권투장갑을 끼워주었던 아버지도 5년후 자기 딸이 세계녀자권투계를 뒤흔든 무쇠주먹의 강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함흥에서 체육인가정의 막내딸로 태여난 그는 14살 나던 해에 당시 함흥철도국체육단 권투감독이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권투를 배웠다.

함흥철도국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한 그는 강의한 투지로 자신을 육체기술적으로 준비하여 국내경기들마다에서 우승을 양보하지 않았다.

그후 그는 국가종합팀 선수로 선발되여 제1차 아시아녀자권투선수권대회 48㎏급경기에서 우승하였으며 련이어 미국에서 진행된 제2차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에서 맞다드는 선수들을 물리치고 아시아녀자권투최강자로서 첫 세계패권을 쟁취하였다.

그는 더욱 분발하여 제2차, 제3차 아시아녀자권투선수권대회에서도 련전련승하였으며 2006년에는 제4차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또다시 세계선수권을 보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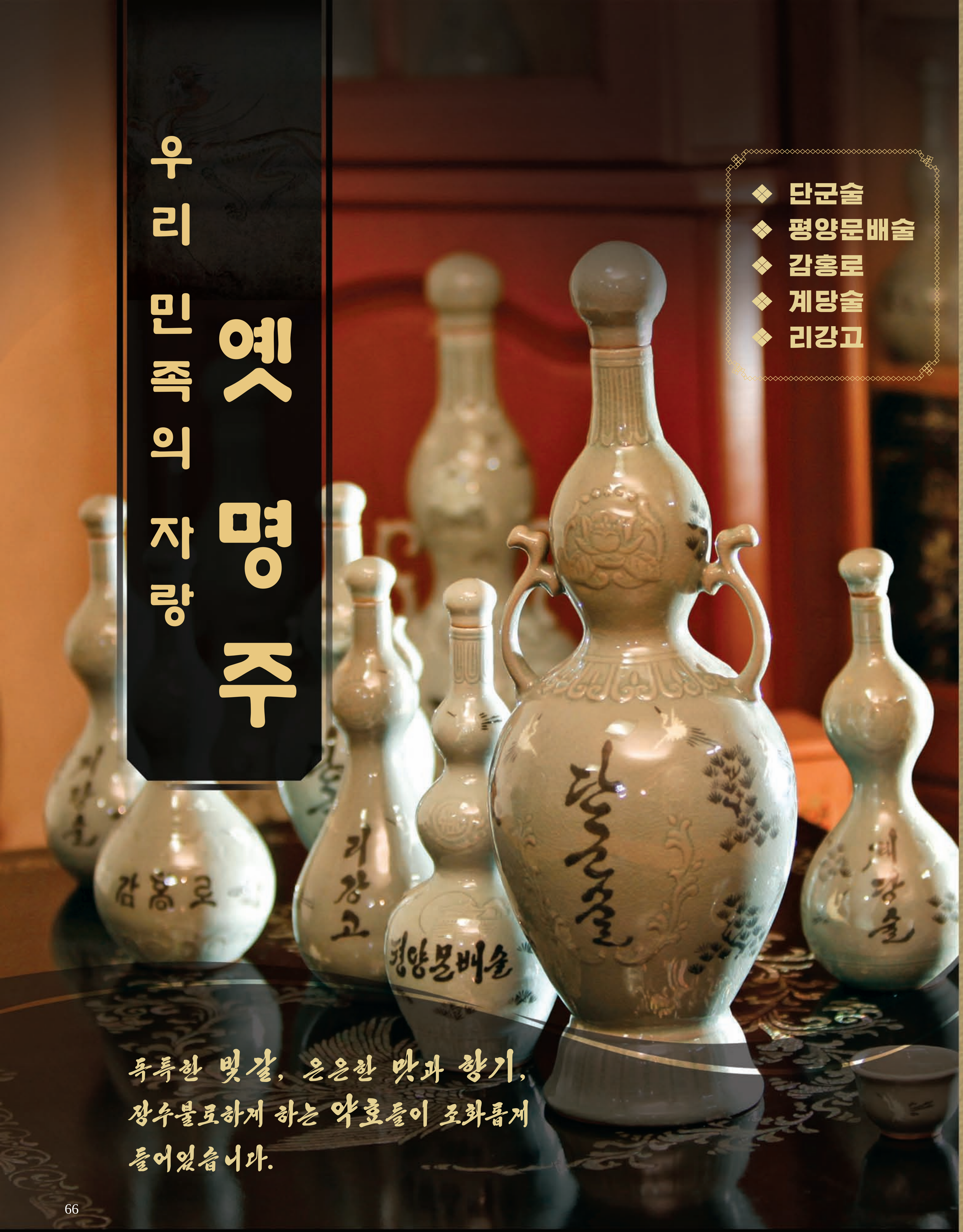
선수생활을 마치고 김철주사범대학을 졸업한 그는 녀자권투감독으로서 능력있는 선수들을 많이 키워냈으며 오늘은 국제권투심판원, 국제권투련맹세계선수권보유자 및 로장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한진아

국제경기에서 우승하고 시상대에 오른 리정향과 경기장면

⇧⇩ 선수후비육성과 감독들의 훈련지도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은 리정향



우리 민족의 자랑 옛 명주

- 단군술
- 평양문배술
- 감홍로
- 계당술
- 리강고

독특한 빛갈, 은은한 맛과 향기, 장수불로하게 하는 약효들이 조화롭게 들어있습니다.

30여년을 옛 명주제조법연구에 바쳐

-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위원 김원범, 황경숙부부 -

조선의 옛 명주들의 제조법을 모두 찾아내여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해가고있는 김원범(77살), 황경숙(70살)부부.

이들이 옛 명주제조법연구에 달라붙은것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의 술문화유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계승발전시킬 하나의 지향에서였다.

비록 양주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들이 민족의 옛 명주를 되살리기 위한 길에 첫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나날 그들은 단군술과 평양문배술, 감홍로, 계당술, 리강고의 제조법을 끝끝내 완성하여 공화국의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이들부부의 노력이 깃든 옛 명주들은 오늘 개천절을 비롯한 민속주제행사들에 널리 리용되고있으며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외국의 술전문가들속에서도 관심을 끌고있다.

사진 라춘송, 글 윤금철

술제조비법과 관련한 옛 문헌을 연구하고있는 김원범선생

김원범선생이 받은 비물질문화유산등록증들의 일부

옛 명주들의 독특한 맛과 약효를 살려내기 위해

단군술은 개천절기념행사에 리용되군 한다.(2016년 10월 촬영)

개천절기념행사에 참가한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위원인
김원범, 황경숙부부(2016년 10월 촬영)

사진으로 보는 2021년 남녘의 민심

2021년에도 남조선인민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전쟁책동반대와 《보안법》철폐, 불평등타파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력사유적

광 법 사

광법사는 고구려 광개토왕때에 건설되여 오늘까지 천수백년을 거쳐 내려오는 문화유적이다.

대성산을 비롯한 평양일대에는 정릉사, 영명사, 금강사, 중흥사 등 고구려시기에 건설한 많은 절들이 있었다. 이 절들가운데서 많은것들은 오랜 력사와 더불어 자취를 감추었으며 광법사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무참히 파괴되였다가 1990년에 원상대로 훌륭히 복구되였다.

광법사는 해탈문, 천왕문, 8각5층탑, 대웅전으로 이루어져있고 대웅전의 좌우에는 동승당, 서승당이 자리잡고있다. 그밖에도 광법사에는 당간지주와 1727년에 세운 광법사사적비, 1638년에 세운 광법사십왕개소상비, 1760년에 세운 광법사중수단청비 등 비석들이 있다.

광법사는 우리 나라의 옛 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적이다.

글 장윤정

대웅전

천왕문

해탈문

낸곳: 통일화보사　 주소: 평양시 중구역 련화2동
사서함: 조선 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ㄱ-1523ㄷ
루계 407